

전남

해양 음악분수 축소
야간 경관조명 소동
여수해경 함정 경량화
완도군 태양광 발전소

전남 에너지 절감 팔 걷었다

국제유가 상승·전력수급난 비상… 지자체·공공기관 대책 마련

국제유가 상승과 전력수급난에 비상이 걸리면서 전남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마다 에너지 절감대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 에너지 위기경보가 '주의경보'로 발령됨에 따라 이달부터 평일 오전 11~오후 6시,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도 제한해 운용하고 있다.

◇야간 경관조명 축소 운영=목포시는 당초 3월부터 매일 3회 가동할 계획이었던 해양 음악분수를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 2회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기념탑과 분수대 교향 등의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도 전면 소동했다.

여수시 역시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의 음악분수 가동시간을 조정했다.

연장해 운용하고 있다. 이는 경비구역과 여수신항 전용부두를 오가는 횟수를 줄여 찾은 이동에 따른 불필요한 유류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함정장내 불필요한涵수품은 육상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식수나 연료유 과다재체 금지 등 '함정 경량화'를 통해 유류소비를 줄이고 있다. 관용차량 운행도 장거리 출장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같은 지역을 출장할 때는 반드시 합동 배차를 하고 ▲경제속도 유지 ▲교통법규 준수 ▲정시간 공회전 금지 등을 실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완도군은

최근 본청과 8개 읍·면 청사 옥상에 총 145㎾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연간 생산전력은 22만㎾h로, 청사조명과 사무기기 대체용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연간 120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 소나무 24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남 각 지자체는 ▲개별 난방기 사용금지 ▲중식·야근시 개인조명 사용 금지 ▲직원 자가용 5부제(요일제) 시행 ▲계단 복도 등 불필요한 곳 소동 ▲피크시간대 난방기 1시간 가동 중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올해도 나비 보러 오셔야죠"

'함평 나비축제' 4월 29일부터 엑스포공원

위해 야외 생태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호주 신체극단 '어스'(Earth)가 축제기간에 나비, 곤충, 생태를 주제로 매일 거리극을 펼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장객들에게 쿠폰(어른 3000원, 어린이 1000원 또는 500원)을 발행해 함평읍내 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 5억원과 관광진흥기금 3억원 등 총 8억원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 나비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고, 수익형 경제축제에 역점을 둘고 군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부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화순-남원 '토종닭 싸움'

우리맛닭 vs 허브닭… 소비자 입맛잡기 경쟁 치열

화순과 남원지역 양계농가 간에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

화순 우리맛닭 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현동)은 오는 25일 '우리맛닭' 1만3000마리 보급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5만 마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우리맛닭' 병아리는 백신 처리한 5주령으로 마리당 4000원이다.

'우리맛닭'은 농촌진흥청에서 20여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지난 2008년 복원에 성공한 재래 토종닭이다. 단백

질 '콜라겐'과 닭고기의 품미를 결정하는 아미노산 '메티오닌'과 '시스틴'이 많이 함유돼 있어 율깃한 고기 맛이 일품이다.

'우리맛닭'은 6개월 이후부터 알(유정란)을 낳고,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로 태어난다. 삼계용은 생체중 800g(50일사육), 백숙용은 2kg(100일사육)일때가 가장 맛있다는 평가이다. 문의(061-379-5431)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방향식물인 '허브'(herb)를 이용한 토종닭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8일 시청 지하식당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허브 닭'의 디자인과 부드러운 정도, 향미 등 관능검사와 시식행사를 가졌다. 관능검사는 사료에 허브를 어느 수준으로 첨가하는 것이 소비자의 기호도에 맞는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시는 향후 '허브 닭'을 남원의 특색 음식으로 발전시켜 토종닭 브랜드개발과 허브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

만680.3㎡, 체육시설용지 1필지 2만 1064.4㎡이다.

공동주택용지(연립)는 5년 무이자, 나머지는 3년 무이자 분할 방식이다.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를 내고 중도금과 잔금은 매 6개월마다 균등 분할납부하면 된다. 접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추첨은 22일 오후 2시부터 개발공사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문영기 고객맞이팀장은 "신도시 내 균형생활시설과 주상복합용지는 이번이 마지막 찬스"라며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경우 수요가 많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총 17필지 18만3121㎡로, ㎡당 가격은 최저 33만원, 최고 170만원이다.

입찰대상은 균형생활시설 2필지 638.7㎡와 주상복합용지 3필지 2만 9882.6㎡, 중심·일반상업시설용지 4필지 4553.4㎡ 등이다.

또 추첨 분양하는 택지로는 전남지사 공관 옆 한옥전용 단독주택 2필지 865.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4필지 7만9256.3㎡, 공동주택용지 1필지 2

한파 피해 녹차나무

전남 피해조사 나서

전남도가 한파 피해를 입은 도내 녹차나무 재배지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전남도는 올 겨울 차나무 가지와 잎이 누렇게 마르고 일부 차나무는 파란 상태로 마르는 '청고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도내 녹차밭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차나무 동해는 35년만에 발생한 것으로 동업재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관련 피해율 산정 등 피해조사 기준이 없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피해조사 기준을 마련, 피해신고 접수 뒤 해당 재배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정부에 복구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관할 시군이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보성지역에선 한파가 이어져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첫불차(우전·곡우·세작)를 수확할 수 없는 등 도내 차나무 재배농가의 피해가 크다. /장필수기자 bungy@



담양 삼인산 입구 단장

담양군 수북면(면장 정운기)에서 추진중인 지역 일자리사업 참가자들이 삼인산 진입로 1km 구간에 철쭉꽃 화단 조성을 위해 땅 고르기 작업 중 발생한 돌을 활용해 돌담을 쌓고 있다. 병풍산 남쪽 자락에 자리한 삼인산은 사람인(人)자 형태의 봉우리가 3개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담양군 제공>

남악신도시 마지막 용지 분양

전남개발공사, 근린시설·주상복합용지 등 21일 접수

전남개발공사는 무안 남악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균형생활시설과 주상복합용지 등 미분양 용지 매각에 나섰다.

전남개발공사는 8일 남악 택지지구 내 미분양된 균형생활, 상업(중심·일반)시설, 주상복합, 단독주택(한옥 전용), 공동주택(연립), 체육시설용지를 경입찰과 추첨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공급될 택지는

만680.3㎡, 체육시설용지 1필지 2만 1064.4㎡이다.

공동주택용지(연립)는 5년 무이자, 나머지는 3년 무이자 분할 방식이다.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를 내고 중도금과 잔금은 매 6개월마다 균등 분할납부하면 된다. 접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추첨은 22일 오후 2시부터 개발공사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문영기 고객맞이팀장은 "신도시 내 균형생활시설과 주상복합용지는 이번이 마지막 찬스"라며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경우 수요가 많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어촌소 전남본부, 전남대와 산학협력

나주경찰, 다문화가정에 법률지원 주선

나주경찰서(서장 박병동)가 법률지식에 취약한 북한 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정을 위해 관내 변호사와 '법률지원협약'을 주선, 협력을 받고 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3일 북한 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정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강동신 법률사무소와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이주여성 등이 법률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협약을 체결한 강동신 변호사가 법률자문과 조력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나주경찰서는 이번 법률지원 협약을 시작으로 북한 이탈주민 등 관내 500여명의 다문화가정이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영산포 제일병원, 김치과 의원 등과 '건강지킴이' 의료협약을 주선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대인동삼일부동산

다산공인중개사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금당 공인중개사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동 LH공사광주전남지사별딩 501

승마장용도 광주근교

임야 5-10만평 구함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m²(2,941평) 3.3m당 58

민원. 자연녹지지역. 불철기능.

- 서구 세하동 일당. 면적 3.835m²(1160평). 4m. 진일로. 매

매가 3.3m당 65만원. 자연녹지. 한재 일당.

- 서구 덕동로 2순환도로 부체로 접한. 담. 1.886m²

(570평). 3.3m당 90만원. 생산녹지.

- 서구 세하동. 서광주역 부근 2.148m²(650평). 담. 3.3m당 72만원. 생산녹지.

- 서구 세하동 매월농원 앞 1.720m²(520평). 담. 3.3m당 65

민원. 생산녹지.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회암동 대지433m²(131평). 전.임.1.994m²(603평). 구 주

택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호.

상촌동 2차선로 나대지

서구 쌍촌동 2차선로변 대지413m²(155평). 제2종일본주거

지역매가 3.3m당 235만원. 캐스티. 신당. 업무용빌딩 적합.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한. 993m²(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건물매매(옹봉지구)

신인동 용봉지구 일대367m²(111평). 3층. 연면적598.8

(181평). 매매가 15억. 보증금6,000만원. 월30만원. 균형생활시설 입점.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보증금 : 109평원 월세 :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73억원

☆보증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 32억원

☆보증금 : 8억2천 월세 :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28억원